

한여름밤의 미식 바캉스... 대인예술야시장 개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월 매주 토요일(5·12·1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한여름밤의 미식 바캉스'를 주제로 '2025 대인예술야시장'을 연다.

대인예술야 시장은 전통시장과 예술의 상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야간 문화공간으로,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에게 감성적이고 힐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와 공간 연출을 대폭 새롭게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먼저 시장 전역에는 전통 먹거리와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미식 부스가 마련돼 토요일 저녁 밥상을 책임진다.

특히 청년예술가들과 상인회가 협업해 만든 '대인 말차 막걸리', '얼그레이 막걸리' 등 이색 막걸리 시리즈는 대인예술시장의 감성을 담은 대표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도 준비한다.

청춘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1990년대 추억의 인기 프로그램을 오마주한 '기슴을 열어라'는 시장 옥상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체험 무대로,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한다.

오락실 게임을 실물로 구현한 '대형 테트리스 체험', KIA 타이거즈 응원 이벤트 '기아야 가 보자야!', 어린이 체험형 미션 '부엉이 탐험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광주시, 7월 토요일(5·12·19일) 밤...미식·체험·응원 이벤트 풍성

추억의 고백 프로그램 '기슴을 열어라' 이색 막걸리 시리즈 주목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야시장에서는 대인예술시장을 상징하는 부엉이 캐릭터가 새롭게 리뉴얼돼 선보인다.

새 캐릭터 '부엉', '어영', '고영'은 굿즈로 제작돼 아트슈퍼마켓에서 판매되며, 캐릭터 탄생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어린이

그림 대회'도 현장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8월 '한평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곳곳에는 복고 감성과 여름 바캉스 분위기를 살린 포토존과 감성 공간이 조성돼 방문객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대인예술야시

장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지역 야간 관광 콘텐츠"라며 "새롭게 변화한 대인예술야시장에서 많은 시민이 즐겁고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owlier_daein_2025)나 인스타그램(@owlier_daein_2025)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대인예술시장 사업단(062-233-0270)으로 하면 된다.

/박도일 기자



남구, 백운광장에서 'K-컬처' 공개한다

문체부·콘진원과 '신기술 융합콘텐츠' 교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큰 화제 모은 작품

7일부터 몰입형 입체 영상 15편 순차 송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 장치인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문화 자원을 최첨단 기술로 구현한 'K-컬처 스퀘어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선보인다.

남구는 3월 "관내 주민을 비롯해 광주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몰입형 입체 영상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컬처 스퀘어 연관 고품질 콘텐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K-컬처 스퀘어는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과 국민에게 우리 문화의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와 인천 국

제공함에 조성한 문화 체험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K-컬처 스크린과 K-컬처 뮤지엄, K-컬처 어트랙션까지 각각 다른 매력의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남구는 K-컬처 스퀘어 공간에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을 관내 주민과 광주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7일부터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통해 몰입형 입체 영상을 송출한다.

오는 12월까지 공개하는 작품의 수는 총 15편이다.

남구는 콘텐츠별 일정에 따라 해당 작품은 순차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작품당 영상 상영 분량은 짧게는 20초에서 4분 사이이다. /임재일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과 함께 동명동만의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하고자 '동명 로컬 특화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7월 1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광주형 로컬 브랜드 '광주 대표 1호 상권'으로 선정, 2024년부터 '광주 우수상권 집중육성사업' 일환으로 동명동 로컬 콘텐츠

14일까지 '동명 로컬특화 상품개발 사업' 공모

동명동 기반 지역 상인 3팀 내외 선발, 골목상권 활성화

터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는 동명동의 지역성에 차별화된 브랜딩을 집중해 동명동 F&B(FOOD&BEVERAGE), 공예, 디자인 상품 등 동명 로컬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시간으로, 동명동(장동 포함)에 기반을 둔

지역 상인으로 3팀 내외를 선발해 특별 상품개발비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상인은 7월 14일까지 광주 동구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평가(1차)와 발표 평가(2차)를 거

쳐 지역성·상품성·성장 가능성을 갖춘 동명 로컬 상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명동의 역사, 문화, 일상의 가치와 정서를 상품에 녹여내는 이번 공모는 동명동을 '소비하는 거리'에서 '경험하는 거리'로 확장 시키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다"면서 "동명동과 함께 성장하는 동명 로컬상인의 로컬 특화 상품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나 예산배정 등을 할 때 가중치를 자동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해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며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5극·3특'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극·3특은 지방균형발전

의 핵심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거점 대학 육성과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들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

람들에게 15만~50만원은 엄청난 큰 돈이다.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다"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또 할 것이냐는 문제는 그 때 가봐야 한다. 재정상황이 (지급을) 더 할 만큼 녹록지 않아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발전과 역점 사업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와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확실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자해야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이나 권한을 지방에 확실하게 이양하지 않고 컨트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북구, 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주·전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는 전국의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를 발굴 및 표상하여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지원체계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 ▲SVI(사회적가치지표) 참여실적 및 투명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노력 ▲지방시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등 5개 분야 12개의 세부 지표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이

뤄졌다.

북구는 올해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우수기술 인증 지원 사업, 온라인·해외 판로 확장 지원, 지원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마케팅 및 경영전략교육 등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도출을 위해 작년 6월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인, 구 의원,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 점이 호평받았다. 이에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송현근 기자

